

## 2024년 가을 뉴질랜드 자매훈련 개요

### 자매들을 위한 공과

#### 제1과

### 신약에 있는 여자들의 본과 본보기(1) - 막달라 여인 마리아

성경: 눅 8:2, 요 20:1-23, 고전 2:9

- I. 막달라 여인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혔으나, 주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눅 8:2). 그녀는 해방되었고, 그 후부터 주님을 참되게 추구하는 사람, 곧 그분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 II. 주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먼저 막달라 여인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 A. 주님은 왜 베드로와 요한과 도마와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보다 먼저 막달라 여인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 B. 오직 막달라 여인 마리아만이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가서 주님을 찾았다. 그녀는 가장 좋은 몫, 곧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는 몫을 받았다. 그녀의 더 좋은 몫은 바로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것을 갈망하고 추구해야 한다.
  - C. 먼저 우리는 주님의 믿는 이들이 되고, 그다음 그분의 연인들이 된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일을 믿고, 그다음 주님의 인격에 이끌린다.
    1.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다만 주님의 일의 귀중함을 알 뿐 주님 자신의 귀중함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 뿐 주님의 사랑스러움을 알지 못한다.
    2. 막달라 여인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녀가 구원을 귀히 여겼을 뿐 아니라 구주를 보배로 여긴 것이었다. 마리아의 마음은 완전히 주님께 점유되고 사로잡힌 마음이었다.
  - D. 마리아는 최초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만아들로 태어나셨고 우리 모두가 그분과 함께 태어난 것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20:17), 그것은 그녀가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막달라 여인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체험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표상(表象)이다.
- III. 마리아가 주 예수님을 본 이야기에는 세 가지 중점이 있다. 첫째, 막달라 여인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에 매료되었다.
  - A. 주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후에도, 막달라 여인 마리아는 그분의 사랑에 아주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무덤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갔지만, 그녀는 주님을 찾으러 무덤에 갔다.
  - B. 그 주의 첫날 곧 주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후 제삼 일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여인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갔다(요 20:1).
    1. 그녀는 일하러 거기에 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간 것은 주님의 사랑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분의 무덤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2. 마리아가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일찍 갔다는 것은 그녀가 날이 밝기를 기다릴 수도 없을 만큼 주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그리워했음을 보여 준다. 그녀는 자신의 주님을 찾을 소망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 주님의 무덤에 갔다.

IV. 둘째,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 새로운 지식, 새로운 계시를 얻었을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의 새로운 나타나심을 체험했다.

- A.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의 반응을 갖게 될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새로운 지식, 곧 새로운 계시를 얻게 된다 - 비교 고전 2:9.
- B. 막달라 여인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였고, 그녀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셨다.
- C.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요 20:1), 누군가가 무덤에서 주님을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다(2절). 그녀는 새로운 발견, 곧 새로운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선포할 새로운 사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새로운 계시가 있었다.
- D.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매들의 장점이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고 빈 무덤을 보았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님을 보기 원했다.

V. 셋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마리아는 그녀가 받은 계시에 근거하여 행동을 취했다. 마리아의 행동은 그녀의 발견과 계시에 근거한 것이었다.

- A. 마리아는 첫 번째로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발견을 한 후, 달려가 제자들에게 알림으로써 행동을 취했다 - 요 20:2.
- B. 그녀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이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 그녀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께서 그녀에게 하였던 말씀을 형제들에게 알리러 갔다 - 요 20:17-18.
- C. 마리아의 행동은 주님에 대한 그녀의 지식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녀가 주님에게서 받은 계시에 따른 것이었다.

VI. 요한복음 20장은 어떠한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깨닫게 될 것인지, 즉 어떠한 사람에게 그분의 부활에 대한 이상이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 A. 막달라 여인 마리아가 무덤에 가기 전에, 사실은 생명 안에서의 부활이 성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함으로 그것을 발견해야 했다.
- B. 이것은 하나의 원칙을 규정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취된 사실이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부활을 발견하는 지점에 결코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했는가?
- C.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주님을 몹시 사랑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아는 사람일지 모른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여러분을 돕는 형제들이 필요하다. 마리아는 즉시 인도하는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자기가 발견한 것을 그들에게 말했다 - 요 20:2.
- D. 첫 번째로 무덤을 본 사람은 마리아였고, 첫 번째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다. 여기에서 형제들은 참으로 형제들인데, 그것은 그들이 생각이 더 분명하고, 사실을 믿는 데에서 자매들이 하는 것보다 더 쉽게 길을 찾기 때문이다 - 요 20:3-10.
- E. 비록 그들이 그 사실을 보고 깨닫고 객관적으로 믿기는 했지만, 주관적으로 체험한 것은 없었다. 객관적인 사실로 만족한 채 그들은 무덤을 떠났다.
- F. 그러나 마리아 자매는 더 오래 머물렀는데, 그것은 그녀가 여전히 기다리고 양망하며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추가로 더 추구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체험을 얻었다.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녀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사실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체험을 했다. 그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체험한 사람이었다.

G. 만일 우리가 주님께 대해 무언가를 더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분과 더 많은 교통을 가져야 한다. 마리아가 주님을 본 것은 최고의 아침 부흥이었다. 이 아침 부흥에서 그녀는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은 그녀를 만나셨다. 그녀는 주님께 기도했으며,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VII. **막달라 여인 마리아는 아침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 축복을 얻었지만(요 20:16-18), 여전히 저녁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집회에 있음으로써 단체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 더욱 많고도 큰 축복을 얻어야 했다(19-23절).**

A. 아침 부흥과 교회 집회는 두 방면이다. 우리에게는 첫 번째 방면의 개인적인 축복만큼이나 두 번째 방면의 단체적인 축복도 필요하다.

B. 마리아는 아침에 무언가 새롭고 신선하며 직접적인 것을 받았고, 아무것도 이를 대치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에게는 여전히 더 많은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과 보내심, 숨을 불어 넣으심, 위임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오직 교회 집회들에서만 받을 수 있다.

C.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 부흥이나 교회 집회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자매들을 위한 공과

### 제2과

## 신약에 있는 여자들의 본과 본보기(2) - 뵈뵈와 브리스가

성경: 롬 16:1-5

- I. 로마서 16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인 우리의 자매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라고 말한다.
- A. 뵈뵈는 여집사, 즉 섬기는 이였다. 바울은 다음 절에서 “이 자매는 많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후원자였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를 높이 평가했다.
- B. 헬라이어에서 ‘후원자’라는 용어는 돕고 격려하고 공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품위 있는 말이다. 후원자는 여러분의 옆에 서서 여러분을 섬기며, 여러분을 보양하고 보살피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사람이다.
- C. 바울이 뵈뵈에 대한 언급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녀가 얼마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존중받았는지를 드러내 준다. 뵈뵈는 어떤 비용과 대가가 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긴 자매였다.
1.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주님께 진지하다면, 우리 또한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교회를 섬기며 돌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교회를 돌볼 마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교회생활을 실행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2. 교회생활의 실행에 필요한 첫 번째 요구 조건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실질적인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 D. 바울 시대에 후원자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돌보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며, 모든 짐을 짊어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는 사람이었다.
1. 뵈뵈 자매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는 봉사를 하였다. 여러분의 필요가 크든 작든, 그녀는 즉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만 공급해 주고자 했다.
  2. 아마 미국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최고의 간호사라 하더라도, ‘로마 시대 후원자’의 봉사에 대한 그림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 줄 수 있을 뿐이다. 최고의 간호사가 보여주는 봉사도 그러한 후원자의 봉사의 삼분의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 E. 각 지방에 있는 교회 모두에는 이런 자매와 같은 한 무리의 섬기는 자매들, 곧 성도들을 돌보는 한 무리의 섬기는 자매들이 필요하다.
1. 중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상하이에 있는 교회의 구십 퍼센트는 섬기는 자매들로 건축되었다. 니 형제님의 사역이 그곳에 있었지만, 형제님의 사역은 그 교회 건축의 십 퍼센트만을 담당했다.
  2. 몇몇 지방에서 교회 건축이 부족했던 이유는 주로 섬기는 자매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강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한 무리의 섬기는 자매들이 일으켜질 수 있도록, 자매들을 위한 얼마간의 훈련을 가질 부담을 갖게 된 것이다.
- F. 가장 번성하는 교회는 섬기는 이들이 가득한 교회이다.
1.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증가를 대단히 관심하고 있으므로, 남아 있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방문과 가정 집회들을 장려하고 있다.
  2. 그러나 우리의 교회생활에서 가장 효과적인 항목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섬길 때,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존하게 될 것이다.
  3.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섬김 받기를 매우 좋아한다. 섬긴다는 것은 다만 사랑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 G.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섬김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야 한다. 겐그레아의 비비 자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1. 모든 사람에게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방문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2. (서울에서) 수많은 주부가 장보기를 마치고 한두 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장바구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몇몇 교회 자매는 주부들의 자녀를 돌보고 시장바구니를 들어 주는 등 즉각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준다. 그 작은 봉사를 통해 그들은 주부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다.
  3.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이웃들 가운데 몇몇은 아프거나 심지어 팔다리를 못 쓰는 이들일 수도 있다. 우리는 적어도 그들의 필요를 조금은 돌볼 수 있다. 이때가 사람들을 얻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4. 심지어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이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다면, 확실히 그들을 세워 줄 것이다.
- H.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비비들이 필요하다. 비비는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였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길 많은 자매들, 심지어 여집사라고 불릴 정도까지 섬길 자매들이 필요하다.

## II.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 A.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자매는 브리스가, 곧 브리스길라이다. 나는 그녀가 교회생활에서 남편보다 훨씬 더 강했고,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돌보는 데 분명 앞장섰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자신들의 집에서 교회 집회를 열어 교회를 돌보았다. 그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집에서 모였다.
- B.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목숨을 자신들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하여 교회들을 돌보았다(롬 16:4). 우리는 교회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1.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우리는 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위하여 기꺼이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어떤 성도들은 오직 자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만을 돌본다.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3.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모든 교회들을 위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특정 지방에 두신 것은 옳은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모든 교회들을 품을 만큼 충분히 넓고 트여야 한다.
- C. 로마서 16장 5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그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가리킨다. 한 면에서 이 부부는 모든 교회들을 위했고, 또 다른 면에서 그들은 특별히 자신들의 지방에 있는 교회를 위했다.
1. 그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을 때에는(행 18:18-19)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그들의 집에 있었다(고전 16:19). 그들이 로마에 있을 때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들의 집에서 모였다. 로마서 16장 5절의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였다.
  2.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있는 것은 매우 무거운 짐이다. 여러분이 실지로 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절대적으로 교

회생활을 위했고, 무거운 짐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았다.

- D. 한 가정에서, 만일 아내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교회생활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항상 좌절하게 될 것이다. 한 가정이 교회생활을 하는 최상의 길과 최고의 길은 아내가 앞장서는 것이다.
1. 다른 문제에서는 아내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정을 위해 실질적인 교회생활의 길을 취하는 문제에서는 아내들이 앞장서도 된다.
  2. 가르치거나, 결정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문제에서 앞장설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자매들이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제3과  
신약에 있는 여자들의 본과 본보기(3) -  
유오디아와 순두게

성경: 빌 4:2-4, 2:3-9

- I.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뛰어나고 사랑스러우며 심지어 영적인 두 자매였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 빌 4:2-3.
- A.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유하고 순두게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나와 함께 명에를 멘 그대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들은 나와 함께, 또한 클레멘드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B. 그들은 좋은 자매들이었다. 즉 그들은 영적이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큰 염려였다.
- II.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지위나 헛된 영광을 위해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간청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 A. 만일 빌립보 교회 안에 경쟁의 문제가 없었다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 B. 빌립보 성도들 간에 헛된 영광을 위한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 빌 2:3-9.
- C.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한 경쟁이 아직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바울의 말이 필요하다.
- D. 우리는 빛 비춤을 받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우리의 본으로 취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 때 부활의 능력 안으로 인도될 것이고, 이 능력이 우리를 높일 것이다.
- III. 의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봉사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논쟁의 주된 원인이다. 그들의 의견들은 영적이고, 선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그런데도 의견들은 의견들이다.
- A. 예를 들어 ‘유오디아’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순두게’는 “메시지를 아주 자세히 전해야 사람들이 듣고 이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 B. ‘유오디아’는 “목요일 저녁은 성경 읽기 집회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순두게’는 “목요일 저녁은 성경 읽기 집회에 가장 좋고, 다른 어떤 집회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 C. 만일 장로들이 성경 읽기 집회를 목요일 저녁에 하기로 결정한다면, ‘유오디아’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
- D. 성경 읽기 집회를 위해 좌석을 배치할 때에도, ‘유오디아’는 한 방향을 향하도록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순두게’는 중앙을 마주 보도록 배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

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 E.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나 때를 막론하고 언제나 의견이 있다. 파쇄가 없는 곳에는 건축도 없다.
- F. 그러므로 ‘유오디아’나 ‘순두게’ 중 하나가 먼저 파쇄되어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형제들의 교통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G. 이것은 마지못해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유쾌하게 복종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복종은 파쇄된 데서 나온다.

**IV. 교회생활 안에서 자매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매들은 한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 A. 이 때문에 기독교 안의 많은 분열이 자매들로 말미암아 야기되었다. 그들은 종종 분열의 근원이 되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 B. 한 면으로 자매들은 대단히 필요하다. 자매들이 없다면 교회는 메마르다.
- C. 그러나 비록 자매들이 대단히 필요하고 매우 유용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한 생각이 되는 것은 또한 매우 어렵다.

**V. 여러분이 한 생각이 되는 길은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치 아픈 생각에서 영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다.**

- A. 우리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 안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 빌 4:2.
- B. 우리는 결코 타고난 생각, 타락한 생각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러한 생각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타고난 생각을 거절하고 항상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 마 16:23-24.
- C.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과 함께해야 하고, 생각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의견을 달리하는 요인이 생각 안에 있기 때문이다.
- D. 의견을 달리하는 요인은 결코 영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보다 영은 우리가 하나(oneness)를 갖는 곳이다 - 엡 4:3, 롬 8:16.
- E. 우리가 영으로 돌아와서 영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진정한 하나라는 유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킨다면, 다른 사람들과 한 생각이 될 것이다.

**VI.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한다.**

- A. 여기서의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기뻐할 때, 우리는 4장 2절과 3절에서 언급한 하나가 되는 힘을 갖게 된다.
- B.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같은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기뻐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 빌 4:4.

**VII. 모든 자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에서 비롯된 불쾌한 일들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 A. 자매들은 어떤 사람이 언젠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거나 숙고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것을 손에서 놓아 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며, 갓난아기처럼 새로워져야 한다.
- B. 용서는 잊는 것을 포함한다(히 8:12). 잊는 것이 없으면 용서가 없는 것이다.

**VIII. 자매들이 개의치 않고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지닌다면, 교회는 평안할 것이다.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과 심지어 강림의 원칙**

안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진정한 하나가 교회에 있을 것이다 - 빌 2:3-9.

- IX. 한마음 한뜻은 신약 안의 모든 축복을 여는 만능열쇠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한마음 한뜻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 빌 4:2.
- A. 만일 한 지방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성령 안의 침례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 B. 여러분이 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합당한 길을 실행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한마음 한뜻이 필요하다.
  - C. 이 열쇠가 없이는 어떤 문도 열 수 없다. 한마음 한뜻이 '모든 방의 문을 여는 만능열쇠', 곧 신약 안의 모든 축복을 여는 만능열쇠이다.

제4과

신약에 있는 여자들의 본과 본보기(4) -  
엘리사벳, 여신언자 안나, 주님을 섬긴 다른 여자들

성경: 눅 1:39-45, 2:36-39, 8:2-3, 막 15:40-41, 16:1-8

- I.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과 교통 안에서 살았고, 즉 주님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살았고, 주님을 위하여 말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 눅 1:39-45.
- A. 엘리사벳의 신언의 본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과 교통 안에서 살지 않고는, 아무도 예언이 담긴 신언과 함께 그러한 찬양, 그러한 축복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 B. 엘리사벳은 주님을 위하여 말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 1. 엘리사벳은 주님과 교통 안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느슨하거나 한담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 2.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생활 안에는 많은 한담이 있는데, 특히 전화로 하는 한담이 많다.
  - C. 우리 중 많은 이가 우리의 혀와 입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결심을 하고, 이와 더불어 주님을 말하고 어떤 한담도 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해야 한다 - 롬 6:19.
    - 1. 그러한 서원은 한담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이다. 우리의 입이 한담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입이 주님을 말하도록 그분께 드리졌음을 기억할 것이다.
    - 2. 우리의 한담이 이런 식으로 멈추어진다면, 우리뿐 아니라 온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모든 교회 안에서 한담이 멈추어질 수 있다면, 모든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 D. 엘리사벳의 신언은 또한 그녀가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녀의 모든 말과 표현은 매우 영적이었다. 그녀는 또한 주님의 움직이심에 관하여 참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1. 우리는 주일 아침 집회에 올 때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권익은 관심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과 안락만 관심하기 때문이다.
    - 2. 우리는 집회에 올 때,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심과 그분의 권익과 그분의 왕국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할 것이 있을 것이다.
  - E.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아기가 태중에서 뛰었을 때, 그녀의 영이 분발되었다(눅 1:41, 44). 그녀의 말과 표현을 통해 볼 때, 그녀가 영 안에 있었고 생각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 F. 영이 분발되자, 엘리사벳은 즉시 성령의 즉각적인 영감을 받았고(눅 1:41하), 자신의 영을 사용하여 구변을 얻었다(42상절). 42절은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라고 말한다.
    - 1. 그러한 식으로 크게 말하는 것이 곧 영을 사용하는 것이다.
    - 2. 집회들에서, 자주 형제자매들은 담대하게 말하지 않는다. 즉 그들의 영을 사용해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 3.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온다. 주님을 위하여 말할 때, 우리는 자신을 제쳐 놓고 영을 사용해서 크게 말해야 한다.
- II. 안나에 관한 기록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 준다.

- A.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나이 많은 자매가 “밤낮으로 금식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말한다 - 눅 2:37하.
- B. 결국 그 자매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그분에 관하여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누가복음 2장 38절은 “바로 그때 그녀가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였다.”라고 말한다.
  - 1. 안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했다.
  - 2. 우리 모두가, 특별히 자매들이 자녀들에 대해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를 훈련하기 바란다.
- C. 안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을 뿐 아니라 그녀의 기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충만했다. 안나를 생각할 때 주요 중점은, 만일 나이 든 모든 자매가 안나와 같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때 할 말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 D.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있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성령께서 그들 위에 머물러 계셨다(눅 2:25). 그들은 또한 성령의 계시가 있었으며(26절), 그 영을 따라 행했다(27절). 그들은 성전 안에 거하면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37절).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누렸으며 그분의 주입을 받아들였다.
- E.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 홀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일하시기 전에 사람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도록 되어 있었지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이 이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눅 2:25, 36-38).

III.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한다. “또한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나 여러 가지 병이 낫게 된 여인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여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안나, 그리고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인도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 A.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이름이 기록된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열두 제자를 섬겼다.
- B.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여인들의 남편들은 부유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부(富)가 주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을 나타내신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 C. 그때 그 여인들은 그들의 인간 미덕들을 발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였다.

IV.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 있던 여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또 여인들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막달라 여인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라다니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으며,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랐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

- A.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마가의 기록에는 어떤 형제들이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 B. 그는 단지 자매들만을 말한다. 우리는 이 자매들이 우리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다.
- C.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 무리의 자매들이 곁에 서 있었다.

V.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은 세 여인-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에 의해 발견되었다(1절). 6절에서 한 천

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놀라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여러분이 찾고 있지만, 그분은 살아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을 안치하였던 곳입니다.”

제5과

신약에 있는 여자들의 본과 본보기(5) -  
삽비라, 도르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루디아,  
베뢰아의 여인들, 마리아와 버시, 로이스와 유니게

성경: 행 5:1-9, 9:36-41, 12:12, 16:13-15, 40, 17:11-12, 롬 16:6, 12, 딤후 1:5

I.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어찌하여 그대들이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였습니까?”라고 말했다.

- A.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부정적인 장면은 한 쌍의 부부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연관된 것이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지를 팔아, 그 돈의 일부를 자기를 위해 떼어 두었는데, 그의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그 일부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1-2절)
- B.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주하시는 영을 속이고 거짓말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자신을 위하여 땅 판 돈의 일부를 떼어 두었습니까?’”(행 5:3)
- C.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려는 야심을 품었다. 즉 그들은 이름을 내려야 야심을 품었다. 자신들의 야심 때문에 그들은 속임을 당했고, 그 속임수는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 D.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엡 5:24), 남편이 죄를 짓는 데에는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 E. 그들의 사례는 교회생활 안에서 야심과 부정직함에 대해 극도로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II. 사도행전 9장 36절은 “욥바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이다), 이 여인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곤 하였다.”라고 말한다.

- A. “그 무렵 이 여인(도르가)이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었으므로,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말을 제자들이 듣고서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니” - 행 9:37-38.
- B.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든 속옷과 겹옷을 모두 그에게 보여 주었다.” - 행 9:39.
- C.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시신을 향하여 돌아서서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니, 그 여인이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 행 9:40.

III.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한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 A.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집에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음을 본다. 이것은 베드로에 대한 기도가 주로 한 자매의 집에서 드러졌음을 가리킨다.
- B. 이로부터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자매들이 기도의 문제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본다.
- C. 말씀 가운데 있는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활동은 형제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대개 자매

들은 현장 뒤에서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한다. 뒷받침하는 주된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IV. 사도행전 16장 14절은 “거기에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이며 하나님께 경배해 오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다.”라고 말한다.

- A. 주님께서 유럽에서 첫 번째로 얻으신 사람은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
- B. 사도행전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한다.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식구가 침례를 받고 나자, 루디아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나를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신다면, 나의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곡히 요청했다.”
- C. 루디아가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과의 교통, 곧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들어간 것은 그녀가 구원받은 증거였다. 그녀의 초대로 그들은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 D.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복음을 통해, 또한 그분의 복음을 위해 유럽에서 얻으신 최초의 집이었다(행 16:40). 루디아의 집에 가정 집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 E. 이 여성 믿는 이와 그녀의 집안이 주님을 믿고 침례 받은 이야기는 또한 주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실례이다.

V.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곳(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간절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믿었고, 그 중에는 상류층 헬라인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 A. 베뢰아 사람들은 고상한, 즉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었다. 고상한 사람은 항상 현명하다.
- B. 베뢰아 사람들은 간절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서 고상했다.

VI. 로마서 16장 6절과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자매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 A.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첫 번째 마리아로 시작되었고, 로마서 16장의 마리아인 마지막 마리아는 실지적인 교회생활의 완결이다.
- B. 로마서 16장 6절과 12절에서 바울은 마리아가 사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했고, 버시도 많이 수고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수고가 봉사이다.

VII.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또한 나는 그대 안에도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한다.

- A.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상기시켜 준다. 이 믿음은 먼저 디모데의 할머니 안에 거했고, 그다음 그의 어머니 안에 거했다.
- B. 사람들이 세상에서 들어오기만을 바라지 말라. 우리는 다음 세대, 곧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 나오기를 바라야 한다.
- C.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모데를 기르고, 온전하게 하며,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 주는, 로이스와 같은 할머니들과 유니게와 같은 어머니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가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는 결코 풍성해지지 않을 것이다.